

「貞蕤閣集」 시집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Poem Collection, JeongYouKakJib

韓美鏡(Han, Mi-Kyung)*

◁ 목 차 ▷

- | | |
|----------------|---------|
| 1. 緒言 | 4. 비교분석 |
| 2. 박제가의 생애와 저술 | 5. 結言 |
| 3. 시집의 사본과 현전본 | <참고문헌> |

< 초 록 >

본고는 조선시대 시인이자 실학자인 박제가의 필사본 유고 「貞蕤閣集」 중 시집부분에 대하여 저술시기 및 국내외의 현전본과 영인본을 살펴보고 국내본과에 새로이 발견된 미국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貞蕤閣集」의 간사년에 관한 기록은 박제가 19세이던 戊子年(1768)이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시집의 완성은 그의 작고년인 1805년 전후가 아닌가 사료된다. (2) 국내의 전래본과 영인본을 종합하여 보면 「貞蕤閣集」 시집의 '序'는 이덕무의 '楚亭詩稿序'(1768년), 박지워의 '楚亭集序'(1772년), 李調元和 潘庭筠의 서(1777년), 陳鱣의 서(1801년)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제 사본을 조사한 결과 박제가의 단독 시집은 「楚亭詩稿」, 「楚亭集」, 「貞蕤閣集」, 「貞蕤詩集」, 「貞蕤稿略」, 「貞蕤詩初」, 「楚亭小稿」, 「楚亭詩鈔」, 「貞蕤閣初集」, 「貞蕤詩稿」, 「竟信堂夾袋」 등으로 전래되고 있다. (4) 「貞蕤閣集」 시집의 국내 현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및 단국대학교 천안도서관, 고 壬昌淳에 의하여 소장 전래되어 왔으나 아쉽게도 모두 결본이다. (5) 「貞蕤閣集」 시집의 국외 현전본으로 이번에 새로이 발견된 미국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은 5권5책 완질이다. (6) 국내 현전본과 미국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을 비교결과 형태, 권수부분, 서명사항, 저자사항 등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발견하였다.

요어 : 朴齊家, 「貞蕤閣集」시집, 하버드 엔칭 도서관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mkhank@korea.com)

접수일: 2004년 11월 12일 최초심사일: 2004년 11월 17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ABSTRACT>

This study concerns poem collection part of *JeongYouKakJib* (貞藜閣集) which is a posthumous manuscript of a poet and scholar of Sirhak(實學) during Chosun times, Je-ga Park's. As a result of the competitive study of domestically available texts and newly discovered text possessed by Harvard-Yenching Library as well as the study of writing year of this collection and its presently available texts and type facsimile texts, the following pointes are identified.

(1) According to the existing records, the writing year of *ChongYouKakGip* is 1768 when Park was 19 years old. However, this poem collection is thought to be completed actually around 1805 when Park passed away. (2) The comprehensive study of presently available texts and type facsimile texts available domestically and outside of Korea indicates that *Seo*(序) of *JeongYouKakJib* is the selective handwritings of *ChoJungShiGoSed*(楚亭詩稿序) of Duk-moo Lee's(1768), *ChoJungJipSeo*(楚亭集序)of Ji-won Park's(1772), *Seo* of Jo-won Lee's and Jung-kyun Ban's(1777), *Seo*' of Jun Jin's(1801). (3) The study of various manuscripts shows that single-handed poem collection has found its way into *ChoJungShiGo*(楚亭詩稿), *ChoJungJib*(楚亭集), *JeongYouKakGib*, *JeongYouShiJib*(貞藜詩集), *JeongYouGoRyak*(貞藜稿略), *JeongYouShiCho*(貞藜詩初), *ChoJungShiGo*(楚亭小稿), *ChoJungShiCho*(楚亭詩鈔), *JeongYouGakChoJib*(貞藜閣初集), *JeongYouShiGo*(貞藜詩稿), *KyungShinDangHyupDae*(竟信堂夾袋), etc. (4) Domestically available *JeongYouGakJib* poem collection has been possessed by National Central Library, GyuJangGak, Chonan Campus Library of Dankook University, and Chang-soon Lim. Each of those sets, however, has some missing volume. (5) The poem collection of *JeongYouKakGib* available overseas is newly discovered set possessed by Harvard-Yenching Library in the US, which consist of 5 sets and 5 volumes for each set without any missing volumes. (6) There are perceived several differences between sets that are domestically available sets and sets that are possessed by Harvard-Yenching Library in terms of publication form, beginning part composition, title details, and author details.

Keywords : Je-ga Park, *JeongYouKakJib*, Poem Collection, Harvard-Yenching Library

1. 서 언

조선시대 朴齊家(1750~1805)는 서자로 태어나 ‘四家’의 일인이었으며, 규장각 초대 검서관으로 선용되었으며, 당시 네 차례에 걸쳐 연경에 다녀온 시인이자 실학자이다. 그의 대표 저술로는 詩集 5책, 文集 4책, 「北學議」 2책이 있으며, 그중 시집과 문집이 함께 엮여 「貞蕪閣集」으로 전해지고 있다. 「貞蕪閣集」은 박제가의 유집으로 중국에서 목판본의 「貞蕪稿略」으로 간행된 적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번도 간행된 적 없이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제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철학, 경제, 문학을 포함하여 여러 영역에 걸쳐 많은 논문이 속출하였다. 그중 박제가의 시와 시집을 중심으로 한 문학방면의 연구는 박제가의 생애, 사상, 문학관 또는 시 해석 및 분석, 審美意識, 시의 실학사상, 회화성, 청 문화와의 관련 및 영향관계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그들 기존연구는 대부분 국사편찬위원회의 「貞蕪集」(1961), 여강출판사의 「貞蕪閣全集」(1985), 아세아문화사의 「楚亭全書」(1992) 및 민족문화추진위원회의 「貞蕪閣集」(2001)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상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소장본 등을 합본하여 영인하거나 국외본을 영인한 것이다. 이는 현재 국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및 기타 주요 기관이나 도서관 어디에도 「貞蕪閣集」 시집 5책의 완질본이 전래되고 있지 않는 결본이기 때문이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국내의 경우 기존 학계에 알려져 있는 상기의 전래본 외에 단국대학교 천안도서관에도 「貞蕪閣集」이 4권2책으로 소장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또한 1집이 결본이다. 이처럼 현재 국내에 결본으로 전래되고 있는 「貞蕪閣集」 시집 5권5책 전질이 미국 하버드옌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박제가 및 그의 시집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국내 소장본을 합본 영인한 판본을 대상으로 연구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국내외의 현전 및 영인 상황을 조사 고찰하고 국내본과 새로 발견된 하버드옌칭도서관 소장본의 비교분석함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고는 우선 박제가의 생애와 저술세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박제

가가 19세 되던 해인 영조44년 戊子年(1768)으로 알려져 있는 「貞麤閣集」시집 저술시기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국내 각 기관 및 도서관에 흩어져 소장되어 있는 박제가 시집의 제 사본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貞麤閣集」시집의 국내외의 현전본과 영인본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국내 주요 현전본과 미국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필사본의 경우 필사 및 전래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본고가 이후 해외유출 전적 및 조선시대 시집 연구와 국문학 연구의 기초가 되리라 기대한다.

2. 박제가의 생애와 저술

본장에서는 박제가의 저술세계를 중심으로 생애를 살펴보고 「貞麤閣集」시집의 저술시기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1 박제가의 생애와 저술

박제가의 생몰년은 1750년~1805년이다.¹⁾ 본관은 密陽, 자는 次修, 在先, 修其이며 호는 楚亭, 貞麤 또는 葦杭道人이라 한다. 1750년(영조 26) 11월 5일에 밀양 박씨 監司公派로서 右副承旨 朴珮(1700~1760)의 서자로 태어났다.

청년시절 자기의 詩集을 엮었으며, 燕巖 朴趾源, 雅亭 李德懋, 冷齋 柳得恭,

1) 1815년 사망설도 있으나 그의 스승 박지원(1737~1805)이 죽었다는 소식에 크게 상심해 곧 죽었다는 설과 1805년 이후 글이나 행적에 대해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1805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正祖實錄」卷三十七 十七年(1793) 癸丑五月 戊午條 “……登筵稟處……扶餘縣監朴齊家…….”와 「正祖實錄」卷三十九 十八年(1794) 二月 甲申條 “行酌獻禮于文廟, 還御春塘臺…… 試文武科……武取朴齊家等三十一人, 放榜.”의 기록에 의하여 박제가가 1794년(정조 18) 2월 45세의 나이로 춘당대 武科別試에 응시하여 壯元으로 급제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이는 「武科總要 卷三 正宗 十八年條의 ‘朴齊坤’을 ‘朴齊家’로 오기하여 발생한 오해이다. 鄭忠權, “朴齊家 武科 應試 與否 辨證,” 「전농어문연구」 7집(1995), 115-117.

觀軒 徐常修, 薑山 李書九 등과 교류하며 날마다 詩를 짓고 實學을 討論하였다. 특히 이들은 詩를 잘 지었기 때문이며 유득공의 숙부 柳琴이 이들의 詩를 엮어 「市衍集」이라 하였다. 1776년 11월에 謝恩使 徐浩修의 幕僚로 燕京에 가 이것을 淸의 유명한 학자 李調元和 潘庭筠에게 보이고 序와 題評을 받았다. 序에 그들을 ‘四家’²⁾라 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9세이던 1778년부터 52세이던 1801년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 여행하였고, 청 학자 紀昀을 위시해서 潘庭筠, 李調元, 祝德麟, 江德量 등 일류 명사와 교류하는 한편 淸의 문물제도와 각종 시설을 세밀히 관찰하였다. 그러한 명사들과의 교류 및 여정들에 대한 내용이 그때마다 시집에 담기게 되었으며, 특히 첫 번째 여행이후 그의 대표적 실학서 「北學議」를 저술하였다. 이후 정조 22년(1798) 경기도 영평 현령 부임시절 農書를 구하는 임금의 요청에 따라 「應旨農政疏」를 올렸다.³⁾

1779년에 奎章閣에 庶子の 벼슬자리로 檢書官 四員이 신설, 初代檢書官으로 李德懋, 朴齊家, 柳得恭, 徐理修 4명이 選任되었다. 이후 朴齊家は 14년 동안 奎章閣에 있으면서⁴⁾ 閣臣을 보좌하여 御製와 御筆 및 「日省錄」을 정리하고 「武藝圖譜通誌」 등 서적을 편저하였다.⁵⁾

1801년(純祖 1) 辛酉邪獄 때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함경도 鍾城으로 유배되었다. 그는 유배지에서 다시 십삼경을 주석하였다.⁶⁾ 2년 반 동안 귀양살다가 1804년에 放送이 명되고, 그 다음해에야 放置되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세간에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2) 李德懋(1741~1793), 柳得恭(1748~1805?), 朴齊家, 李書九(1754~1825)를 이른다. 원래 당나라 시대 초기의 시인 王勃, 楊炯, 盧照隣, 駱賓王을 이르며, 후자를 ‘初唐四傑’ 전자를 ‘後四家’라고도 한다.

3) 이는 「進陳本北學議」로서 「北學議」를 삼분의 일 정도로 간추려 첨삭하고 순서를 바꾸어 올린 것이다.

4) 與徐內翰 “齊家曰, 齊家受不世之恩, 勅設閣銜, 出入深殿 十有四年”. [朴齊家], 「貞齋集」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1), 356.

5) 「正祖實錄」 卷三十一 十四年(1790) 庚戌 四月 “武藝圖譜通志成”, “……命檢書官李德懋朴齊家, 開局於壯勇營, 看詳編摩 爲之疏解”

6) 「貞齋閣集」 文集 卷4, 寄稔兒

<표 1> 박제가의 연표

| 년령 | 서기 | 양조 | 干支 | 월일 | 내 용 | 비 고 |
|----|------|------|----|--------------|--|-----------------------------|
| 1 | 1750 | 영조26 | 庚午 | | 출생 | |
| 11 | 1760 | 영조36 | 庚辰 | | 부친 사망 | |
| 19 | 1768 | 영조44 | 戊子 | | 「楚亭詩稿」엮음. | 「雅亭遺稿」楚亭詩稿序 |
| 23 | 1772 | 영조48 | | | 「楚亭集」엮음. | 「燕巖集」楚亭集序 |
| 27 | 1776 | 영조52 | 丙申 | 11 | 柳琴이 엮은 「巾衍集」을 淸학자 李調元, 潘庭筠 에게 보여 序와 題辭를 받음. | 「白塔淸緣集」 등장 |
| 28 | 1777 | 정조2 | 丁酉 | | 증광시 문과 급제 | 「貞蕤閣集」文集 策試土策 丁酉增廣. 단, 임용못됨 |
| 29 | 1778 | 정조3 | 戊戌 | 5 9 | 처음으로 燕京에 들어감. 「北學議」 저술 | |
| 30 | 1779 | 정조3 | 己亥 | | · 奎章閣 初代檢書官으로 李德懋, 柳得恭, 徐理修 등과 함께 選任됨. · 御製와 御筆 및 「日省錄」정리. · 「武藝圖譜通誌」 등 서적을 편찬 출판. | |
| 41 | 1790 | 정조14 | 庚戌 | 1-9 10 | 두번째로 燕京에 들어감. 세번째 燕京에 들어감. | |
| 43 | 1792 | 정조16 | 壬子 | | 扶餘縣監이 됨. | |
| 49 | 1798 | 정조22 | 戊午 | | · 경기도 永平縣令으로 부임. · 왕께 「進陳本北學議」 올림. | |
| 52 | 1801 | 순조 1 | 辛酉 | 2 9.15 | 네번째 燕京에 감. 辛酉邪獄 때 체포되어 鍾城으로 유배 | 十三經 등 주해 |
| 55 | 1805 | 순조4 | 乙丑 | 3.22 4.25 | 放置 사망 | 년도 불명 |

2.2 「貞蕤閣集」 시집의 저술시기

박제가 시집의 저술 시기는 일반적으로 그가 19세 되던 해인 영조 44년(1768)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貞蕤閣集」 시집의 ‘序’의 기록년도가 ‘戊子’로 기록되어 있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표 2> 「貞蕤閣集」 시집의 序

| 소 장 본 | 수 록 서 | 시 기 | 비 고 |
|-------------|---|-------------------------------|------------------|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李德懋의 「雅亭遺稿」 楚亭詩稿序 李調元의 「韓客巾衍集」 序 | 戊子 1768 丁酉 1777 | |
| 고 임창순 소장본 | 李調元의 「韓客巾衍集」 序 朴趾源의 「燕巖集」 楚亭集序 陳鱣의 「貞蕤稿略」 序 | 丁酉 1777 壬辰 1772 辛酉 1801 | 국사편찬위원회 「貞蕤集」 참고 |
| 일본 동양문고본 | 李德懋의 「雅亭遺稿」 楚亭詩稿序 李調元, 潘庭筠의 「韓客巾衍集」 序 | 戊子 1768 丁酉 1777 | 아세아문화사 「楚亭全書」 참고 |
| 정유고탁 | 李調元, 潘庭筠의 「韓客巾衍集」 序 *陳鱣의 序 | 丁酉 1777 辛酉 1801 | *실제 해당 서 |
| 한객건원집 | *李調元, 潘庭筠의 序 | 丁酉 1777 | *실제 해당 서 |
| 전주사가시 | *尹喜求 李調元, 潘庭筠의 「韓客巾衍集」 序 | 丙辰 1916 丁酉 1777 | *실제 해당 서 |

이상 <표 2>에 의하면 ‘序’가 실려 있는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고 임창순본 그리고 일본의 동양문고본⁷⁾ 뿐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李德懋와 李調元의 서가 실려 있으며, 전자는 그의 문집 「雅亭遺稿」에 실려 있는 ‘楚亭集序’, 후자는 「韓客巾衍集」의 서가 그것이다. 고 임창순본에는 이조원, 박지원 및 진전의 서가 실려 있는데, 「韓客巾衍集」 서, 「燕巖集」, 「楚亭集序」, 「貞蕤稿略」 서이다. 반면 영인본의 경우 여강출판사의 「貞蕤閣全書」를 제외한 3종 모두 ‘서’를 수록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참고한 대본에 따라 실려 있는 ‘서’가 다르다.(표 5 참조)

종합적으로 「貞蕤閣集」 시집의 ‘序’는 「韓客巾衍集」에 실린 李調元과 潘庭筠의 서(1777년), 「貞蕤稿略」에 실린 陳鱣의 서(1801년), 「燕巖集」에 실린 박지원의 ‘楚亭集序’(1772년), 「雅亭遺稿」에 실린 이덕무의 ‘楚亭詩稿序’(1768년)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貞蕤閣集」 시집의 ‘序’는 「貞蕤閣集」 시집 1집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덕무의 ‘楚亭詩稿序’와 박지원의 ‘楚亭集序’를 들 수 있으며, 실제 전체 「貞蕤閣集」 시집에 관련

7) 일본 동양문고본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국내 영인본인 「楚亭全書」의 경우 (표 5참조)로 대체한다.

한 ‘序’는 이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貞蕪閣集」 시집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戊子年보다 후에 내용이 추가되거나 완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1768년에 작성된 이덕무의 서는 박제가가 19세이던 해에 완성한 소년시절의 시집 「楚亭詩稿」을 엮을 때 기록된 것이다. 「楚亭詩稿」는 일서로 현재 전해지지 않고 이후 「貞蕪閣集」 시집 1집에 포함되면서 본 序도 함께 실린 것으로 보이며, 그 예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본과 일본 동양문고본의 경우가 그렇다.

둘째, 실제 시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燕行하여 燕京에서 교류한 학자들을 그리워하는 懷人詩거나 酬唱詩들이 많이 보인다. 박제가는 29세이던 정조 3년(1778), 41,2세이던 정조 14년(1790~1791), 52세이던 순조 1년(1801)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연행하였다. 특히 1791년 3차 연행 후 이미 청의 인사 50여 명을 알게 되었고⁸⁾ 이에 대한 증거로 「貞蕪閣集」 시집 3집에 가장 많은 ‘懷人詩’가 실려 있다. 한편 4집에는 3차 연행시 겪은 여러 내용을 담은 ‘燕京雜絕’ 140여 편이 실려 있다.

셋째, 柳琴이 엮은 ‘四家’의 시선집 「市衍集」에 대하여 淸의 학자 李調元和 潘庭筠은 序와 題評에 극찬하였다. 李調元和 潘庭筠에게 보인 후의 박제가의 심정이 「貞蕪閣集」 시집 2집에 보인다.

넷째, 박제가의 네 번째 연행이었던 1801년 연경에서 吳省蘭이 박제가의 시를 보고 발췌하여 이후 「藝海珠塵」에 포함시켜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 「貞蕪稿略」이다. 청의 陳鱣이 嘉慶6년(순조원년 1801)에 쓴 「貞蕪稿略」 序에 의하면 기왕의 구작 중에서 가려 뽑은 것으로⁹⁾ 「貞蕪稿略」은 4집까지의 발췌본이라 할 수 있다.

8) “余以不才，三入燕京，中朝人士，不鄙而與之傾倒焉，倦遊既罷，觸于中，追述舊事，得知名五十人……”. 「貞蕪閣集」 3集, 35面.

9) “檢書，手一編出示曰，貞蕪稿略，皆其舊作，首列對策，發明古學，貫通六藝群書”. 「貞蕪稿略」 序.

이상을 종합하여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박제가 시집의 서 작성년인 영조 44년인 1768년은 소년시절 「楚亭詩稿」가 쓰여 질 때 이덕무가 작성한 「楚亭詩稿序」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실제 「貞蕪閣集」시집 전체 5집의 저술은 연대순으로 계속적으로 저술되었고, 완성 시기는 최소 박제가의 작고년인 1805년 전후로 사료된다

3. 시집의 사본과 현전본

본장에서는 국내에 흩어져 전래되고 있는 박제가의 시집으로 알려져 있는 제 사본을 조사 분석하고, 국내외 주요 기관과 도서관의 소장 및 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시집의 사본

박제가의 시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제가 시집의 사본은 「白塔淸緣集」, 「韓客巾衍集」, 「箋註四家詩」, 「楚亭詩稿」, 「楚亭集」, 「貞蕪稿略」, 「貞蕪閣集」, 「貞蕪詩稿」, 「貞蕪詩集」, 「貞蕪詩初」, 「楚定小稿」 등의 표제¹⁰⁾로 전하고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白塔淸緣集」

이는 ‘四家’의 공동 저술이다 이는 十三 李喜經에 의해 편집된 詩文과 尺牘選集이며, 白塔淸緣’의 구성원인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의 시들을 모아 놓

10) 일반적으로 국내 각 기관이나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록의 표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일부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에 의하여 사용된 표제는 일관성의 부족으로 필요시 설명하거나 바로잡았다.

은 것이다.¹¹⁾ 이는 四家の 작품만을 수록한 것은 아니지만 詩文에 있어서는 사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768년경 박제가가 이덕무와 박지원을 만나 교류하기 시작한 이후 6, 7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아쉽게도 이는 일서로서 현존하고 있지는 않다.¹²⁾

3.1.2 「韓客市衍集」

이 또한 ‘四家’의 공동 저술이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柳琴이 엮은 詩選集 「市衍集」으로 다음해인 1777년에 淸의 학자 李調元和 潘庭筠로부터 ‘序’와 ‘評’을 받고 이후 중국에서 간행된 것이다.¹³⁾ 1776년은 박제가 27세로 연암문하에 들어 간지 8년여의 세월이 흐른 후이고 「韓客市衍集」에 실린 시들은 박제가가 27세이던 1776년 이전작품들로 초기작품의 대표작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이상의 「白塔淸緣集」과 비슷한 시기이므로 두 판본간의 중복 가능성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貞蕪閣集」시집 1집의 작품 중에서 주로 채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⁴⁾

-
- 11) ‘白塔’은 漢城 中部 慶幸坊에 소재하였던 圓覺寺址十層石塔의 별칭이다.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까닭에 백담이라 불렀으며, 현재 서울 종로구 탑골 공원 안에 있다. 四家の 교류가 본 白塔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영조 43년(1767) 이후부터 정조 3년(1779) 이전까지 근 10여년이 전성기였다. ‘북학파’인 이들을 기른 연구자들 중 安大會는 ‘白塔詩派’라 명명하였다. 安大會, “白塔詩派研究-李德懋·柳得恭·朴齊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大學院, 1987), 6.
 - 12) 다만 박지원의 서 「白塔淸緣集序」만이 전해지고 있으며, 박제가가 19세이던 해에 기록된 것으로 「貞蕪閣集」시집 1집과 「燕巖集」에 실려 있다고 한다. 실사에 의하면 이는 「楚亭集序」를 가리키며 이는 박제가 23세때의 서로서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 13) 유금이 「市衍集」으로 엮은 것에 대하여 이조원과 반정균으로 부터 서와 평을 받고 이후 「韓客市衍集」으로 알려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박현규는 이는 중국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이 아니고 乾隆60년(淸 高宗 年號 1795)에 출판된 이조원의 「雨村詩話」에 수록되었다고 한다. 朴現圭, “韓國的 「四家詩」 與淸朝李調元的 「雨村詩話」,”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部, 1999), 1; 鄭日男, “朴齊家の 試論과 詩,”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2), 6에서 재인용.
 - 14) 그 일례로 박제가가 20대에 백담시파 동인들과 더불어 한참 왕성한 활동을 시작할 때

책머리에 西湖 潘庭筠, 雨村 李調元이 쓴 序文이 있고, 本集에는 四家의 詩가 각기 수록 15)된 뒤에 各人에 대한 이정원과 반정균 두 사람의 評이 첨부돼 있다. 규장각에 4종, 국립중앙도서관에 6종 그의 연세대(원주), 서울대, 동국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3.1.3 「箋註四家詩」

이는 新鉛活字本으로 간행된 것으로 朴齊永이 註를 달고 뒤에 白斗鏞이 교정한 것이다. ‘柳琴 抄라 기록되어 있고, 編次는 다르나 작품의 내용이나 제목 등은 「韓客市衍集」을 臺本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丙辰年(1916)의 尹喜求와 丁酉年(1777)의 淸 潘庭均의 서가 있으며, 경성의 翰林書林에서 大正 10년(1921)에 간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4종, 이화여대, 전남대, 건국대, 경북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3.1.4 「楚亭詩稿」

이는 박제가가 청년 시절 지었던 시집으로 영조 44년(1768)에 엮어진 것이다. 현재 전하지는 않으나 이덕무의 서문이 전한다 즉 이덕무의 문집 「雅亭遺稿」 卷之三 ‘文’부분에 楚亭詩稿序가 실려 있으며 이는 박제가 19세 때에 기록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일본 동양문고본에 본서가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이후 「貞蕪閣集」시집 1집 작품 일부로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쓴 시 ‘月瀨雜絕四首’ 제1수 “母將一紅字 泛稱滿眼華 華鬢有多少 細心一看過”는 「貞蕪閣集」1집에 실려 있는 것이 「韓客市衍集」에는 爲人賦嶺花 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安大會, 「韓國 漢詩의 分析和 視覺,」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177.

- 15) 권1은 李德懋 편으로 저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秋燈急曲’ 등 詩 74수 수록, 권2는 柳得恭 편으로 略歷 및 ‘夢踏亭’ 등 詩 58수 수록, 권 3은 朴齊家 편으로 略歷 및 ‘池亭’ 등 詩 57수 수록, 「明農初稿」를 저술했다 하나 전하지 않는다. 권 4는 李書九 편으로 略歷과 ‘水標橋同白塔詩社諸人作絕句’ 등 詩 75수를 수록하고 있다.

3.1.5. 「楚亭集」

이는 영조 48년(1772)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현재 전하지는 않으나 박지원의 서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燕巖 朴趾源의 「燕巖集」卷之一 ‘烟湘閣選本’ ‘序’부분에 楚亭集序가 전한다. 본서에 박제가의 나이가 23세로 기록되어 있으니 「楚亭詩稿」 이후의 또 다른 시집으로도 생각되기도 하며, 고 임창순 소장본에 실린 박지원의 楚亭集序에서는 박제가를 19세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상의 「楚亭詩稿」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¹⁶⁾ 한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대본으로 사용한 고 임창순 소장본에 본 서가 수록된 것으로 보아 본 「楚亭集」 또한 「貞麤閣集」시집 1집에 작품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사료된다.

3.1.6 「貞麤閣集」

이는 필사본으로서 5권5책의 시집과 4권4책의 문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박제가의 시집을 이르는 대표적인 표제이기도 하다. 국내 주요 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貞麤閣集」(1-3집), 규장각에 「貞麤詩集」(1집, 3-4집)과 「貞麤閣集」(3-5집)이 소장되어 있으며, 개인 고 임창순이 1집과 3-5집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단국대학교 천안올곡도서관에 「貞麤閣詩集」(2-5집)이 소장되어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새로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1집이 결본이다. 국외의 경우 일본의 동양문고본 외에 미국의 하버드옌칭도서관에 5권5책이 완질로 소장되어 있음을 새로이 발견하였다.

16) 원래 국사편찬위원회가 저본으로 삼은 규장각 소장본에는 실제 본 서문이 없다. 그렇다면 이는 교정용으로 참고한 고 임창순 소장본에 실려있던 ‘서’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의 “朴氏子齊家, 年十九, 能文章, 號曰楚亭, 從予遊予, 夜與之言如此……”와 「燕巖集」의 “朴氏子齊雲年二十三, 能文章, 號曰楚亭, 從余學有年矣……”를 비교하면 내용은 같으나 글자 혹은 글귀에 있어 차이가 보인다. 다만 전자는 박제가의 나이를 19세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후자에서 박제가의 나이를 23세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3.1.7 「貞蕤稿略」

「貞蕤稿略」은 「貞蕤閣集」 문집과 시집의 일부를 발췌하여 중국 청나라 당시 북경에서 吳省蘭¹⁷⁾이 「藝海珠塵」¹⁸⁾내에 포함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陳鱣의 서가 실려 있으며, 1801년이라는 시간적 상황으로 보아 「貞蕤閣集」 시집 4집정도 까지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후 중국의 藝文印書館, 商務印書館 및 中華書局 등에서 또 다른 총서의 일부로 편입 영인되었다.

국내의 경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8책1합의 1810년의 聽彝堂 간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박재가의 「貞蕤稿略」은 革集 제53에 실려 있다. 규장각에는 발췌본으로 보이는 1책(35장)의 「貞蕤稿略」이 국립중앙도서관¹⁹⁾에는 두 종류의 「貞蕤稿略」이 소장되어 있다. 그의 경북대, 서울대, 서강대 등 일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3.1.8 「楚亭詩鈔」

이는 표지서명이며, 권두서명은 「貞蕤閣詩鈔」이다. 저자사항이나 어떠한

17) 純祖元年(1801)에 朴齊家가 燕京에 갔을 때 사권 淸 나라의 학자

18) 이는 217種375卷의 총서로서 청의 吳省蘭 輯, 錢熙輔 增輯으로 이루어졌다. 오성란은 자 泉之, 稷堂이며 江蘇 南匯(현재 상해에 속한다) 사람으로 乾隆12년(1778)에 진사가 되고 禮部侍郎에 올랐다. 김희보는 金山(현재 상해에 속한다) 사람으로 오성란의 사위였다. 본 총서는 天干으로 편차하여 甲集부터 申集까지 총 8集으로 김희보가 壬集과 癸集 2집을 증보하였다. 후에 蘇州 坊肆에 귀속된 후 임집과 제집은 없어지고 이전의 8집도 옛모습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金石絲竹匏土革木으로 편차되었고 한때 매우 통행되었다. 각 集은 대략 경사자집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로 명청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으며, 간혹 외국인의 저술도 실려 있다. 전해지는 판본으로는 嘉慶년간(淸 仁宗의 년호 1796~1820)에 오성란의 聽彝堂刊本(전 8집)과 道光(淸 宣宗 년호 1821~1850) 30년(1850)에 김희보가 漱石軒에서 오성란의 판본을 原版重印한 增刊本이 있다.

19)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藝海珠塵」63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貞蕤稿略」은 제55책에 수록되어 있으나 실사결과 본책은 결본 상태이다. 참고로 그외 제8책, 제27-28책, 제47책 또한 결본이다.

기록도 없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筆溪小集’, ‘約山亭逢李’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록내용으로 보아 「貞蕤閣集」 시집 1집의 발췌본으로 사료된다. 이는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3.1.9 「貞蕤詩初」

이는 표지서명이며, 권두서명은 「楚亭詩抄」이다. 이 또한 저자사항이나 어떠한 기록은 없으나 판심에 ‘留軒藏板’이라 기록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池上’, ‘海落月盈’, ‘書囊’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록내용으로 보아 「貞蕤閣集」 시집 1집의 발췌본으로 사료된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3.1.10 「貞蕤閣初集」

이는 표제상으로 「貞蕤閣集」시집 1집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1집의 발췌본으로 사료된다. ‘密陽 朴齊家 修其’라는 저자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표지에 ‘仙□□手抄’라는 기록에 의거 이후 수초본으로 사료된다. 이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3.1.11 「貞蕤詩稿」

이는 「貞蕤閣集」 시집 3집의 발췌본이다. 이는 단국대학교 퇴계기념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영인본이다.

3.1.12 「楚亭小稿」

이는 표지서명이며, 권두서명은 「竟信堂夾袋」이다. 저자사항이나 어떠한 기록도 없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楊州途中’, ‘永平遇雨脚瘡甚□’ 등이 수록되

어 있다. 이러한 수록내용으로 보아 「貞蕤閣集」시집 5집의 발췌본으로 사료 된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3.1.13 「竟信堂夾袋」

이는 「貞蕤閣集」시집의 5집이다. 서강대학교, 단국대학교 및 하버드엔칭 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貞蕤閣集」시집 5집에 대한 권두서명으로 본 표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기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楚亭小稿」 또한 그렇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즉 사가의 공동저술서로서 「白塔淸緣集」, 「韓客巾衍集」, 「箋註四家詩」이 있으며 그중 「白塔淸緣集」은 더 이상 전하고 있지 않다. 한편 「楚亭詩稿」와 「楚亭集」은 저술 전말을 자세히 알 수 없으며, 다만 이덕무의 「雅亭遺稿」와 박지원의 「燕巖集」에 ‘序’만이 전한다. 전자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동양문고본에, 후자가 고 임창순 소장본에 실려 있어 이후 「貞蕤閣集」시집 1집의 근간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리고 시집과 문집으로 구성된 대표적 표제 「貞蕤閣集」 외에 4집까지의 발췌본 「貞蕤稿略」 1집 발췌본 「貞蕤詩初」와 「貞蕤閣初集」 및 「楚亭詩鈔」, 3집의 「貞蕤閣詩集」, 5집 또는 그 발췌본 「竟信堂夾袋」과 「楚亭小稿」의 표제로 현재 전하고 있다.

<표 3> 박제가 시집의 판본

| 표 제 | 내 용 | 비 고 |
|-------|----------------|--|
| 白塔清緣集 | 사가 공동저술 | 일서 |
| 韓客巾衍集 | " | 유급 엮음, 李調元和 潘庭筠의 서 |
| 箋註四家詩 | " | 활자본, 「韓客巾衍集」과 유사 |
| 楚亭詩稿 | 청년 시절 시집 | 李德懋 「雅亭遺稿」 卷之三 楚亭詩稿序 |
| 楚亭集 | " | 朴趾源 「燕巖集」 卷之一 楚亭集序 |
| 貞齋閣集 | 「貞齋詩集」 시집 1-5집 | 「貞齋詩集」 및 「貞齋閣詩集」으로도 알려져 있다. |
| 貞齋稿略 | 「貞齋詩集」 시집 발췌본 | · 李調元和 潘庭筠 및 陳鱣의 서 · 본관본 발췌본도 동일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
| 楚亭詩鈔 | 「貞齋詩集」 시집 발췌본 | 권두서명 「貞齋閣詩鈔」 |
| 貞齋詩初 | 「貞齋詩集」 시집 발췌본 | 권두서명 「楚亭詩初」 |
| 貞齋閣初集 | 「貞齋詩集」 1집 발췌본 | |
| 貞齋詩稿 | 「貞齋詩集」 3집 발췌본 | |
| 楚亭小稿 | 「貞齋詩集」 5집 발췌본 | 권두서명: 「竟信堂夾袋」 |
| 竟信堂夾袋 | 「貞齋詩集」 5집 | 본관본에 대한 발췌본도 동일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

3.2 시집의 현전본

본 장에서는 사가 공동저술을 제외한 박제가의 시집으로서 국내외에 흩어져 전하고 있는 국내외의 각 기관과 도서관의 소장본과 영인본을 조사 분석하였다.

3.2.1 국내 소장본

박제가 시집의 국내 주요 기관 및 도서관의 소장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이하 <표 4>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시집 1 집의 일부를 다루고 있는 「貞齋詩抄」, 청나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된 「貞齋稿略」²⁰⁾ 외에 이에 대한 발

20) 상기하였듯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의 「藝海珠塵」 제 53책의 본 「貞

책본으로 필사본의 「貞蕤稿略」과 「楚亭小稿」(즉 「貞蕤稿略」)을 소장하고 있다. 「貞蕤閣集」시집의 경우 전체 5집 중 1-3집만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는 ‘貴重本 375’로 규정되어 있다.²¹⁾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체 5권 5책의 「貞蕤閣集」에 대하여 4집과 5집이 결본인 상태로 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박제가 시집 조사결과 「貞蕤閣集」²²⁾, 「貞蕤閣初集」, 「貞蕤稿略」, 「貞蕤詩集」²³⁾이 검색되었다. 즉 1집인 「貞蕤閣初集」과 발췌본 「貞蕤稿略」외에 「貞蕤閣集」 전체 5집 중 3집, 4집, 5집 또는 1집, 3집, 4집만을 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규장각은 두 종류의 「貞蕤閣集」을 소장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1집과 2집 또는 2집과 5집이 결본인 상태로 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으로는 고 任昌淳의 소장본을 들 수 있다.²⁴⁾ 이는 권두 인장 부분에 의하면 고종시대 修信使였던 徐相雨의 소장본이었다. 서상우는 추사의 제자이며, 추사는 박제가의 제자로서 이는 소장경로를 보여주는 근거이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하면 그 표지의 기록사항²⁵⁾으로 보아 이는 「貞蕤閣集」시집의 최초 抄定本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아쉽게도 2집이 결본으로 이 또한 완질본은 아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貞蕤稿略」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는 「藝海珠塵」 革集 제53 「貞蕤稿略」 2권으로 고문헌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蕤稿略」은 결본 상태이며, 이는 목판본의 위장문고본이다

- 21) 일부 선행자료에 의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의 「貞蕤閣集」 소장본은 1-4집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본은 실사결과 1-3집으로 4집은 소장하고 있지 않다. 한편 2집은 반환문화재로서 1966년에 일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이다
- 22) 이는 일부 선행자료에서 「貞蕤詩稿」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표지서명이며 권두서명은 「貞蕤閣集」이다.
- 23) 이는 일부 선행자료에서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소장의 「貞蕤詩抄」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貞蕤詩抄」는 표지서명이며 현재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이 아닌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서명 외에 광곽, 어미 등의 형태적 기술에도 착오가 발견되어 본고에서 바로잡는다. 광곽은 사주쌍변이 아니라 사주쌍변과 사주단변이 혼합되어 있으며, 특히 1권 제 일장을 살펴보면 사주단변이다. 어미 또한 상화화문어미가 아니라 상화문어미이다
- 24) 국사편찬위원회, 「貞蕤集附北學議」, 해제 6-7.
- 25) 제1집: 古經齋抄正, 제3집: 鼎金齋校, 제4집: 萬卷樓寫, 제5집: 思秋堂攷藏.

<표 4> 국내 「貞蕤閣集」 소장현황

| 소장처 | 표제 | 간사사항 | 형태사항 | 분류번호 | 비고 |
|----------|-------|---|---|---------------------------------|------------------------|
| 경북대중앙도서관 | 楚亭詩鈔 | 미상 | 필사본. 1冊(25張). 四周雙邊. 有界. 10行21字. 上下向黑魚尾. 21.8×13.5cm | 古 811.1 박 73 ㄹ | 권두서명: 貞蕤閣詩鈔 |
| 국립중앙도서관 | 貞蕤閣集 | 미상 | 필사본. 3책(1-3집). 25.3×16.2 cm | 古貴 3644-27 (貴 375) | · 서: 戊子... 李德懋, 李調元 |
| | 貞蕤詩抄 | 미상 | 필사본. 1책. 上下單邊左右雙邊. 有界. 10行21字. 上下向黑魚尾. 24 cm. | 위장 古 3648-25-1 4 | |
| | 楚亭小稿 | 미상 | 筆寫本. 38張. 四周單邊. 有界. 10行21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5.8×17.0 cm. | 위장 古 3648-25-1 2=複 | 권두서명: 竟信堂夾袋 |
| | 貞蕤稿略 | 미상 | 필사본. 14장. 四周雙邊. 有界. 10行21字. 上下向二葉花紋魚尾. 27×17.3cm. | 위장 古 3648-25-1 3=複 | |
| 미상 | | 목판본. 1책. 四周雙邊. 有界. 8行21字. 註雙行. 上黑魚尾. 20.2×13.3 cm | 위장 古 3648-25-7 奎 5588- | · 서: (淸)陳鱣 | |
| 규장각 | 貞蕤閣集 | 미상 | 필사본. 3책(3-5집). 26.5×19 cm. | v.1-3 | |
| | 貞蕤閣初集 | 미상 | 필사본. 1책(44張). 26.5×18.5 cm | 古 3477-92 | · 1집 |
| | 貞蕤詩集 | 미상 | 稿本. 3책(1, 3-4 집). 四周單邊과 雙邊 혼합. 有界. 11行24字. 上花紋魚尾. 32.7×18.7 cm. | 古 3477-93-v. 1-3 | |
| | 貞蕤稿略 | 미상 | 필사본. 1책(35장). 30×19.5 cm. | 想白古 819.55 B148j | |
| 단국대도서관 | 貞蕤詩稿 | 미상 | 영인본. 1冊. 21cm. | 연민 851.905 20 정 533 ㄹ v.3 | · 3집 · 퇴계기념중앙도서관 소장 |

「貞蕤閣集」시집에 대한 연구

| 소장처 | 표제 | 간사사항 | 형태사항 | 분류번호 | 비고 |
|--------------|--------|---------------|---|---------------------------|--|
| | 貞蕤閣詩集 | 미상 | 사본. 2冊(2-5집). 有界. 12行27字. 36×23.521cm. | 851.905 박474 권1,2,3 | · 천안읍곡기 념도서관 소장 |
| 서강대중 양도서관 | 竟信堂夾袋 | 미상 | 사본. 1冊(49張).四周雙邊. 有 界, 9行, 上黑魚尾. 25×15cm. | 경 59 | 5집 |
| | 貞蕤稿略 | 미상 | 사본. 1冊(49張). 20×13cm. | 정 67 | |
| 서울대중 양도서관 | 貞蕤稿略 | 聽霽堂 [1810] | 목판본. 2권. 좌우쌍변 반엽 10행 지수부정 상하하향이미 24.6×15.4 cm | 0230 97 | · 吳省蘭 (淸) 輯; 陳雲 (淸) 等 校 · 「藝海珠塵」 革集聽霽堂藏 版 卷53 |
| 고 입장순 | [貞蕤閣集] | 미상 | 1, 3-5집. | | 아세아문화사 「楚亭全書」의 지본 |

일부 선행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貞蕤閣集」시집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중앙도서관과 천안도서관에 「貞蕤詩稿」와 「貞蕤閣詩集」이 소장되어 있으며, 전자는 「貞蕤閣集」시집 3집으로 영인본이다. 후자의 「貞蕤閣詩集」은 전체 시집 5집중 2집-5집으로 실제 권두서명은 「貞蕤閣集」이며 頭註가 종종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²⁶⁾ 아쉽게도 이 또한 1집이 결본의 상태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국내의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이외에 국내에 현전하고 있는 「貞蕤閣集」으로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외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楚亭詩鈔」가 소장되어 있으며, 이는 표지서명이며 권두서명은 「貞蕤閣詩鈔」이다. 이는 「貞蕤閣集」시집 1집의 발췌본으로 사료되며, 저자사항에 대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않다. 서강대학교 로올라중앙도서관에는 「竟信堂夾袋」²⁷⁾와 「貞蕤稿略」 2종을 소장하고 있으며, 서

26) 이는 3책의 「貞蕤閣詩集」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조사 결과 3 책 중 2 책은 「貞蕤閣集」시집 2집-5집이며, 다른 한책은 「貞蕤閣集」문집으로 이를 본고에서 바로잡는다. 한편 판식에 대하여서도 '有界 12行21字'로 알려져 있으나 이 또한 '無界 12行27字'로 바로잡는다.

강대학교의 「竟信堂夾袋」은 바로 「貞蕪閣集」 시집 5집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 전래되고 있는 단권 또는 일부 발췌본의 시집 외에 「貞蕪閣集」 시집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1-3집), 규장각(3-5집 또는 1, 3-4집) 및 단국대학교 천안도서관(2-5집)에 소장되어 있으나 모두 결본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3.2.2 국내 영인본

「貞蕪閣集」 시집을 영인하여 출판한 곳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여강출판사, 아세아문화사, 민족문화추진위원회가 있다. 이들은 해외 현전본이거나 국내 현전본의 결본을 합본하여 영인한 것들이다. 상세한 사항은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국내 「貞蕪閣集」 시집 영인본은 총 4종이 있다. 1961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규장각 소장의 「貞蕪閣集」과 「貞蕪詩抄」(즉 「蕪詩集」)를 저본으로 국내 처음으로 「貞蕪閣集」 시집을 영인 출판하였다. 이는 비록 2집이 결본의 상태였으나 그후 여강출판사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2집을 보완하여 비로소 전집으로 「貞蕪閣集」 시집을 영인 출판하기까지 오랜 동안 연구자들에 의하여 참고 연구되어 왔다. 한편 일본의 동양문고본을 저본으로 하여 영인한 「楚亭全書」 1종을 제외한 3종류의 영인본은 최근 2001년까지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규장각소장본을 합본하여 영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의 어디에도 「정유각집」 시집 5권 5책이 완질로 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본의 방법으로 영인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국내 영인본은 다른 결본을 합본하여 영인한 것 외에 다른 한 가지의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내소장본 중 국립중앙도

27) 서강대학교의 경우 「竟信堂夾袋」가 「竟信堂來袋」로 오기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竟信堂夾袋」로 정정 표기한다.

「貞蕪閣集」 시집에 대한 연구

서관 소장본만이 ‘서’를 싣고 있는데, 이들 영인본은 서로 다른 처를 싣고 있다는 것이다. <표 5>에 의하여 이들 영인본의 ‘서’를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박지원의 「燕巖集」 楚亭集序(1772), 이덕무의 「雅亭遺稿」 楚亭詩稿序(1768), 이조원과 반정균의 「韓客巾衍集」 序(1777), 陳鱣의 「貞蕪稿略」 序(1801)가 각각 판본에 따라 다르게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인하면서 박제가 시집 관련 ‘序’들을 함께 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 「貞蕪閣集」 영인본과 저본 상황

| 표 제 | 출판사항 | 序 사항 | 저 본 | 비 고 |
|---------|-------------------------|---------------|---|--|
| 貞蕪集附北學議 | 國史編纂委員會, 檀紀 4294 [1961] | 朴趾源, 李調元, 陳鱣 | 1집, 3집-5집: 서울대학교 소장본 | · 2집 결본 · 고 任昌淳소장본에 의해 교정 · 서: 고 임창순소장본이 저본인 듯 하다. · 저본이 서울대학교소장본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규장각의 「貞蕪閣集」(3-5집)과 貞蕪詩集」(1, 3-4집)을 저본으로 영인한 것. · 韓國史料叢書 제12 |
| 貞蕪閣全集 | 驪江出版社, 1985 | | · 1집, 3집-4집: 서울대학교도서관의 「貞蕪詩抄」 1, 3-4집 · 2집: 국립중앙도서관의 「貞蕪閣集」 1-3집 중 · 5집: 규장각의 「貞蕪詩稿」 3-5집 중 | · 여기의 서울대학교의 「貞蕪詩抄」 또한 규장각의 「貞蕪詩集」을 이른다. · 여기의 「貞蕪詩稿」는 貞蕪閣集」을 이른다. |
| 楚亭全書 | 아세아문화사, 1992 | 李德懋, 李調元, 潘庭筠 | 1-5집 日本 東洋文庫本 | 栖碧外史海外蒐佚本 21 |
| 貞蕪閣集 | 民族文化推進委員會, 2001 | 李德懋, 李調元 | · 1-3집 국립중앙도서관의 「貞蕪閣集」 · 1-3집 중 · 4-5집 규장각의 「貞蕪閣集」 3-5집 중 | · 韓國문집중간 · 標點 趙昌來 · 監修 鄭大鉉 |

3.2.3 국외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제가의 「貞蕪閣集」 시집은 청나라 때 중국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 외에는 한번도 간행된 적 없이 필사본으로 산일되어 전래되고 있다. 반면 결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국내 현전본과는 달리 국외 현전본의 경우 완질로 전해지고 있다. 국외 현전본과 영인본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 6> 와 같다

<표 6> 국외 「貞蕪閣集」 소장 및 영인 현황

| 표 제 | 간사사항 | 판 본 | 권책수 | 소장처 | 비 고 |
|------------|-------------------------|--------|-------|-------------|--|
| 貞蕪閣集 | 미상 | 필사본 | 5권5책 | 미국 하버드엔칭도서관 | |
| 貞蕪閣集 | 미상 | 필사본 | [5권5책 | 일본[동양문고] | 「楚亭全書」에서 확인 |
| 貞蕪稿略 | 聽彝堂 | 목판본 | 2권1책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 吳省蘭 輯, 「藝海珠塵」內 · 그의 국내소장사항은 표 4 참조 |
| | 漱石軒 | 목판본 | 2권1책 | | · 吳省蘭 輯, 金熙輔 增輯, 「藝海珠塵」內 · 原版重印 增刊本 |
| 貞蕪稿略 | 上海: 商務印書館, 民國 26[1937]. | 영인본 | 1책 |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 袁世起 撰, 「守身執玉軒遺文及其他三種」, 王雲五 主編, 「叢書集成 初編」 2540 · 1985년 中華書局 중인 |
| 藝海珠塵: 貞蕪稿略 | 臺北: 藝文印書館, 民國 54[1965]? | 원각 영인본 | 1책 |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 嚴一萍 選輯, 「百部叢書集成」 35. · 1985년 中華書局 중인 |

이상 <표 6> 을 살펴보면 결본으로 산일되어 소장되어 있는 국내의 경우와 달리 국외의 경우 일본과 미국에 5권5책의 완질본으로 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일본의 경우 동양문고본에 「貞蕪閣集」 5책이 완질로 소장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 아세아문화사에서 「楚亭全書」 영인 시에 저본으로

참조한 것이다. 특히 이것은 이덕무 및 이조원과 반정균의 서가 실려 있다

미국의 경우 「貞蕤閣集」시집이 하버드엔칭도서관에 5권5책 완질로 소장되어 있음을 이번에 새로이 발견하였다. 특히 외갑과 외갑의 내면을 살펴보면 ‘李季夏舊藏’, ‘述巖舊藏’, ‘望漢廬舊藏書’라는 장서기록이 있으며, 이를 보아 여러 사람에 의하여 소장되다가 귀도서관에는 1956년 12월 28일에 입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⁸⁾

중국의 경우 박제가의 시집으로는 대부분 「貞蕤稿略」을 소장 또는 영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상기하였듯이 청나라의 吳省蘭이 박제가의 詩集 일부분을 「貞蕤稿略」이란 이름으로 「藝海珠塵」속에 포함시켜서 北京에서 목판본으로 출판한 적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국외 영인본은 대부분 본 「貞蕤稿略」을 저본으로 중국과 대만의 예문인서관, 상무인서관, 중화서국 등에서 영인하였다. 예문인서관의 경우 原刻 영인이며 청나라의 吳省蘭이 輯刊한 예해주진본 제10함에서 선발하여 「百部叢書」35로 영인한 것이다. 상무인서관의 경우 원각 영인이 아니라 새로이 간행한 경우로서 「叢書集成 初編」2540으로 「守身執玉軒遺文」 등과 함께 간행되었다 전자와 후자 모두 1985년에 북경의 중화서국에 의하여 다시 영인 출판되었다.

이상 국내외의 소장본과 영인본 상황을 종합하여보면 박제가의 「貞蕤閣集」은 필사되어 전래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나 한번도 간행된 적은 없었고, 다행히 중국 청나라의 오성란이 그의 시의 일부를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또한 근래 들어 국내에서 간행된 일부 영인본의 경우 국내의 주요 도서관 소장본을 합본하여 겨우 「貞蕤閣集」시집 5책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히 이번에 새로이 발견된 미국의 「貞蕤閣集」5집 완질본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 더욱 더 의의가 크다 하겠다.

28) 미국으로의 전적유출은 해방이후 특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 예로 미국의회도서관, 캘리포니아대학교 극동도서관, 콜롬비아대학도서관, 하버드대학교 하버드엔칭도서관에 상당히 많은 양의 한국 전적들이 소장되어 있다.

4. 비교분석

본장에서는 그중 「貞齋閣集」 시집을 대상으로 규장각본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및 새로이 발견된 단국대학교 천안도서관소장본과 미국의 하버드엔칭 도서관 소장본의 제 사항을 비교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4.1 내 용

「貞齋閣集」 시집은 평소 朴齊家가 친히 지내던 朴趾源, 柳得恭 李德懋 등과 연행시 교류가 있었던 紀昀, 潘庭筠, 李調元, 祝德麟, 江德量 등 淸의 名儒 碩學들과의 酬唱詩, 懷人詩, 續懷人詩 및 題畫詩들이 대부분이다. 총 1200여 수에 달하는 시의 수록기준은 시체별 분류가 아닌 연대별로 분류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내용을 살펴보면 <표-7>과 같다.²⁹⁾

우선 내용에 있어서 상술한 「楚亭詩稿」와 「楚亭集」 및 1768년경 박제가가 이덕무와 박지원 등을 만나 교류하기 시작한 이후 6, 7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白塔淸緣集」과 1776년에 유급에 의하여 엮어진 「韓客巾衍集」은 서로 내용의 중복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이 「貞齋閣集」 시집 1집의 작품 중에서 주로 채택되었거나 이후 「貞齋閣集」 시집 1, 2집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3집 수록시기에 대하여 1794년 2월 무과급제까지로 추정하기도 하나 이는 박제가의 무과급제는 오해이며, 마지막의 「過懋關墓」는 詩題하에 七言絶句가 있으므로 것으로 보아 1793년으로 잡았다.

각 소장본의 수록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1집과 규장각

29) 정옥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貞齋集」을 대상으로 1집: 소년시절의 「楚亭詩稿」 이후 청년시절부터 1779년 규장각에 임용되기 이전까지의 작품들, 3집: 1779년 검서관에 임명될 때부터 1794년 무과급제까지, 4집: 1794년부터 1798년 정조 사후 거세되어 鍾城에 유배되기까지의 작품들, 5집: 1801년 중성에 定配되어서부터 1804년 유배에 풀리고 1805년 죽을 때까지로 나누고 있으며, 2집은 결본인 관계로 그 시기와 내용을 1집과 유사하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鄭玉子, “文學史的 側面에서 본 貞齋集” 『진단학보』 52(1981), 170-173.

「貞齋閣集」 시집에 대한 연구

소장본 중 「貞齋詩集」 3집의 일부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단국대학교 천안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일부 글자의 오기 외에 3집의 권수부분과 권말부분, 5집의 권말부분에 4집의 일부내용을 혼재하고 있다.

<표 7> 「貞齋詩集」 시집의 내용

| | 수 록 시 기 | 수 록 내 용 | 비 고 |
|----|---|---|--|
| 1집 | 1768년경 박계가가 이덕무, 박지원 등을 만나 교유하기 시작 후 6, 7년 후 까지 | · 대부분 북학과 제현들의 명승고적에 대한 유람, 자연과 풍물에 대한감회, 국내 인사들과의 교유를 그린 회인시 | 「楚亭詩稿」와 「楚亭集」, 「白塔淸緣集」 및 「韓客巾衍集」의 작품과의 중복가능 |
| 2집 | 1776년 27세 「韓客巾衍集」 시기부터 1779년 30세에 검서관에 임명 후 초기생활 때 까지 | · 당시 吳蜀의 문단 대가 潘庭筠 과 李調元の 인정받은 내용(放歌行演冷庵語) · 특히 다수의 摛文院 관련 작품 · 1차 연행의 귀로에 청 문인이 지어 준 듯한 「東澗河贈鮑紫卿」 | 1차 연행때의 정조 문인과의 주고받은 시나 그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다. |
| 3집 | 1780년대 본격적 검서관 시절부터 1793년 이덕무가 즐거한 때 까지 | · 대부분 박계가의 행적을 반영하는 시제 및 燕行 길의 풍물을 읊은 작품 및 교유한 淸學士들에 대한 懷人詩 · 2차 연행 때의 청대문인들과의 교유시문 30여수 수록 | |
| 4집 | 1794년부터 1798년 정조 사후 거세되어 鍾城에 유배되기까지의 작품들 | · 대부분 교유한 청유들에 대한 회인시와 대인관계에서 연유한 시편들 · 특히 正祖大王 輓詞 二十首는 작고한 정조에 대한사모의 정과 추모의 향념 작품 · 「燕京雜絕」은 지금까지의 연행의 여정 속에 만난 산천, 도읍, 유적, 인물 등에 대한 140수의 거편 | 「燕京雜絕」: 원제 「燕京雜絕贈別任恩叟妹兄追憶信筆凡得一百四十首」 |
| 5집 | 1801년 종성에 定配되어서부터 1804년 유배에 풀리고 1805년 작고 때까지 | · 종성으로 향하는 귀양길의 강개 침울한 작품, 귀양살이중의 客愁, 유배지의 풍물시 및 회고시 및 마지막 인생행로에 관한 작품 · 특히 「愁州客詞」는 유배지 함경도 수주에서 담은 지방의 실정 79수 | · 수주: 지금의 강원 · 1801년 제4차 연행 때의 작품이 보이지 않는다. |

예를 들면 원래 「江秋史」, 「題桐江殿丞魚麥圖」, 「續懷人詩 18首」, 「果川東閣小宴」, 「次韻萬歲橋」 등은 4집의 내용이나 3집과 5집에 특별한 기준없이 권수 또

는 권말부분에 혼재되어 있다.

4.2 형태사항

<표 8>에 의하면 국내의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및 단국대학교 소장본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의 형태적 사항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단국대학교 소장본의 경우 판식이 없는 ‘無界’이며 규장각소장본은 판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두 경우이며,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은 판식이 있는 경우이다. 판식이 없는 경우 중 단국대학교 소장본의 경우 36cm의 큰 책으로 12행 27자이다. 판식이 있는 ‘有界의 규장각 소장본 『貞齋詩集』과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의 行格을 살펴보면 전자는 ‘11행 24자’이나 후자는 ‘10행 21자’로 서로 같지 않다. 어미 또한 규장각소장본은 ‘二葉花紋魚尾’이나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은 ‘白魚尾’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및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은 각집이 별책으로 편집되어 있으나, 단국대학교 소장본의 경우 제 2책에 2집과 3집, 제 3책에 4집과 5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장본의 형태사항을 종합하면 이상 5종의 『貞齋閣集』은 각각 다른 형태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필사의 방법으로 전래되어 왔기 때문에 형성된 일반적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에만 보이는 장서기록은 필사본으로서 가치의 귀중함을 높여주는 경우이다.

4.3 권수부분

각 소장본의 권수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크게 ‘서’와 ‘목차’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서언은 있으나 목차를 싣고 있지 않다.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은 서언은 없으나 1집을 포함하여 5집 모두 목차를 권수부분에 싣고 있다. 규장각소장본의 경우 두 판본 모두 서언은 보이지 않

「貞齋閣集」시집에 대한 연구

고 다만 「貞齋詩集」은 1집에 대한 목차로 ‘1卷目錄’만을 싣고 있으며, 3집과 4집에는 목차를 싣고 있지 않다. 이처럼 국내 소장본의 경우 일부 외에 어느 판본도 일관된 목차를 싣고 있지 않는데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은 1집에서 5집까지 모두 각권 권수부분에 목차를 싣고 있는 것 또한 특기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8> 국내의 「貞齋閣集」시집의 비교

| | 국립중앙도서관 | 규 장 각 | | 단국대학교 | 하버드엔칭도서관 |
|-----|-----------------------------------|-----------------------------|--|---|--|
| 표 계 | 貞齋閣集 | 貞齋閣集 | 貞齋詩集 | 貞齋閣集 | 貞齋閣集 |
| 소 장 | 3권3책: 1-3집 | 3권3책:3-5집 | 3권3책:1,3,4집 | 4권2책: 2-5집 | 5권5책: 1-5집 |
| 판 본 | 필사본 | 필사본 | 稿本 | 필사본 | 필사본 |
| 형 태 | 25.3×16.2 cm 無界. 10행21字 | 26.5×19 cm 無界. 10行21字 | 32.7×18.7 cm 四周單邊과雙邊 혼합. 有界. 11行 24字. 上二葉花紋 魚尾 | 36×23.521cm 無界. 12行27字 | 23 cm 四周雙邊. 有界. 10 行21字 上白魚尾 |
| 장 정 | 선장. 오침안정 | 선장. 오침안정 | 선장. 오침안정 | 선장. 오침안정 | 선장. 오침안정 |
| 서 | 戊子秋日 (1768) 李德懋, 李調元 | 무 | 무 | 무 | 무 |
| 목 차 | 무 | 무 | 일부: 1집 | 무 | 각집 |
| 서 명 | · 권두: 貞齋閣集 | · 표지: 貞齋詩稿 | · 표지:貞齋詩抄 · 목록: 1집 貞齋詩集 | · 표지:貞齋閣 詩集 · 권두:2-4집 貞齋閣集;5집 竟信堂夾袋 | · 표지: 貞齋集 · 권두: 1-4집 貞齋閣 集; 5집 竟信堂夾袋 · 판심: 1-4집 貞齋閣 集; 5집: 竟信堂夾袋 |
| 저 자 | 1-2집: 密陽朴齊 家修其, 3집: 무 | 3-5집: 密陽朴齊家修其 | 1집, 4집 密陽朴 齊家修其, 3집 密陽朴齊家次修 | 무 | 1-4집: 密陽朴齊家修 其; 5집: 密陽朴齊家 顯翁 |
| 장 수 | 1집: 61장, 2집 67장, 3집: 59장 | 3집: 60장, 4집 66장, 5집: 39장 | 1집: 60장, 3집 38장, 4집: 58장 | 2집: 44장, 3집 24장, 4집: 32 장, 5집: 27장 | 1집: 70장, 2집: 67 장, 3집: 58장, 4집 64장, 5집: 38장 |
| 간 사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장서기 | 무 | 무 | 무 | 무 | 외갑: 李季夏舊藏 述巖舊藏 외갑서태내면: 望漢廬舊藏書 |
| 장서인 | 무 | 무 | 무 | 무 | 권말: 述巖 |
| 비 고 | · 권수: 4대가 및 內閣設立檢書官 에 대한 기록 | | | · 頭註 · 줄필 · 목색불일치 | |

한편 상술하였듯이 이상의 5종 「貞蕪詩集」 중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에만 ‘서’ 즉 이덕무와 이조원의 서가 실려 있다. 이덕무의 서는 1768년 박제가 19세에 작성된 것으로 「雅亭遺稿」에 실려 있는 「楚亭詩稿序」와 동일하다. 이조원의 서는 1776년 유급이 엮은 「巾衍集」에 대한 1777년의 서이다. 이는 시기적으로 보아 「貞蕪詩集」 시집 1집이 박제가 소년시절의 시집 「楚亭詩稿」와 사가공동시집 「韓客巾衍集」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4.4 서명사항

일반적으로 박제가의 대표시집은 「貞蕪集」 또는 「貞蕪閣集」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5종을 살펴보면 조금은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규장각 소장본의 경우 조금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貞蕪閣集」은 표지서명은 「貞蕪詩稿」이고 「貞蕪詩集」의 경우 표지서명이 「貞蕪詩抄」이다. 이는 이러한 연유로 기존 선행자료에서 이들을 혼용하여 소장본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의 권두서명은 「貞蕪閣集」이다. 단국대학교 소장본의 경우 표지서명은 「貞蕪閣詩集」이나 각집 권두서명의 경우 2-4집은 「貞蕪閣集」, 5집은 「竟信堂夾袋」라 기술되어 있다.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을 살펴보면 1집과 4집의 권두서명은 「貞蕪閣集」이나 5집의 권두서명은 「竟信堂夾袋」로 표기되어 있으며, 표지서명은 「貞蕪集」이다. 반면 국립중앙소장본과 규장각 소장본 모두 판심제는 보이지 않으나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1집에서 4집까지 모두 「貞蕪閣集」이라 되어 있고, 5집의 경우 권두서명과 같다.

특히 특기할 것은 기존의 각 기관과 도서관의 소장본들 중 5집을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의 「貞蕪閣集」을 살펴보면 권두서명이 「貞蕪閣集」이다. 반면 이번에 새로이 발견된 단국대학교와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은 모두 「竟信堂夾袋」라 기재하고 있다. 한편 단권으로 소장하고 있는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의 「楚亭小稿」의 권두서명 또한 동일표제로 표기되어 있다.

4.5 저자사항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은 모두 각권 제1장에 ‘密陽 朴齊家 修其’(도 1 참조)로 본과0 성명 및 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규장각소장본의 경우 「貞齋閣集」은 ‘密陽 朴齊家 修其’(도 2 참조)라 기술되어 있으나, 「貞齋詩集」은 1집과 4집에는 ‘密陽 朴齊家 修其’, 3집에는 ‘密陽 朴齊家 次修’(도 3 참조)로 기록되어 있다. 단국대학교 소장본의 경우 2집에서 5집까지 어디에도 저자사항에 대한 기록(도 4 참조)은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을 살펴보면 1집에서 4집까지 모두 저자사항에 관하여 ‘密陽 朴齊家 修其’(도 5 참조)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5집은 ‘密陽 朴齊家 顙翁’(도 6 참조)이라 기록하고 있다.³⁰⁾ 전자의 ‘次修’는 ‘修其와 더불어 불리 우던 박제가의 자이며, 후자의 ‘顙翁’은 박제가의 또 다른 자나 호가 아닌가 사료된다. 이는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이 이후에 필사되면서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박제가 만년의 호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또한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사항이다.

이상 국내의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단국대학교 천안도서관 소장본 및 미국의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의 형태 및 권수부분, 서명사항 및 저자사항 등에서 살펴본 차이는 각각의 5종이 별개의 경로로 필사되어 전래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경우들로 생각된다. 그중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에 보이는 각권마다의 목차는 국내 소장본에서는 없는 경우로서 특기할 만한 가치라 사료된다. 5집에서만 보이는 저자사항과 서명사항은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만의 또 다른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소장본 중 특히 단국대학교 소장본은 조금은 떨어지는 필체에 목색의 처음과 끝의 차이와 번짐 정도의 차이가 전체적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은

30) 일본 동양문고본을 대본으로 영인한 아세아문화사의 「楚亭全書」에 실린 시집 5집 경우 역시 ‘密陽 朴齊家 顙翁’이라 되어 있다.

에서 5집까지 전체적으로 정연하고 통일된 필체로 필사되었으며 이 또한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하는 한 요소라 생각된다.

5. 결 언

본고는 조선시대 시인이자 실학자인 박제가의 유고, 「貞蕪閣集」 중 시집부분에 대하여 저술시기 및 국내외의 현전본과 영인본을 살펴보고 국내본과 새로이 발견된 미국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朴齊家의 자는 在先, 修其, 次修라 하고, 號는 楚亭 또는 葦杭道人이라 하다가 晩年에 貞蕪로 고쳤다. 특히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의 시집 5집 「竟信堂夾袋」 제일장에 보이는 額翁은 박제가가 晩年에 사용하였거나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호가 아닌가 생각된다.

(2) 「貞蕪閣集」은 정식으로 간행되지 않고 필사본으로 전래되어 왔다. 「貞蕪閣集」의 간사년에 관한 기록은 박제가 19세이던 戊子年(1768)에 작성된 이덕무의 서에서 비롯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시집의 완성은 그의 작고년인 1805년 전후가 아닌가 사료된다.

(3) 국내외 전래본과 영인본을 종합하여 보면 「貞蕪閣集」 시집의 ‘序’는 「雅亭遺稿」에 실린 이덕무의 ‘楚亭詩稿序’(1768년), 「燕巖集」에 실린 박지원의 ‘楚亭集序’(1772년), 「韓客巾衍集」에 실린 李調元和 潘庭筠의 서(1777년), 「貞蕪稿略」에 실린 陳鱣의 서(1801년)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貞蕪閣集」은 시집과 문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시집은 5권5책이 완질이다. 제 사본을 조사한 결과 ‘四家’의 공동 시집으로 「白塔淸緣集」, 「韓客巾衍集」, 「箋註四家詩」가 있으며, 박제가의 단독 시집으로 「楚亭詩稿」, 「楚亭集」, 「貞蕪閣集」, 「貞蕪詩集」, 「貞蕪稿略」, 「貞蕪詩初」, 「楚亭小稿」, 「楚亭詩鈔」, 「貞蕪閣初集」, 「貞蕪詩稿」, 「竟信堂夾袋」 등으로 전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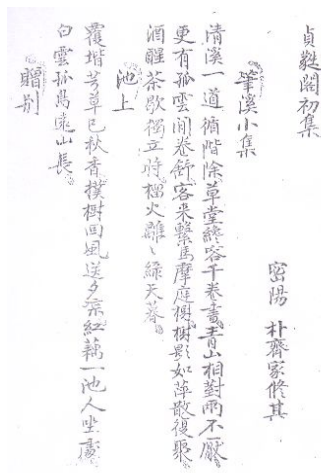
(5) 그중 「貞蕪稿略」은 「貞蕪閣集」시집 발췌본으로 중국 청나라 당시 북경에서 吳省蘭이 「藝海珠塵」내에 포함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聽彝堂刊本과 增刊本이 있다. 이는 근래 들어 중국의 藝文印書館, 商務印書館 및 中華書局에서 영인 또는 중인 출판하였다.

(6) 「貞蕪閣集」시집의 국내 현전본은 국립중앙도서관(「貞蕪閣集」1-3집), 규장각(「貞蕪閣集」3-5집; 「貞蕪詩集」1, 3-4집) 및 단국대학교 천안도서관(「貞蕪閣詩集」2-5집)에 소장되어 있으며, 개인 고 壬昌淳(「貞蕪閣集」1집, 3-5집)에 의하여 소장 전래되어 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모두 결본으로 완질로 전하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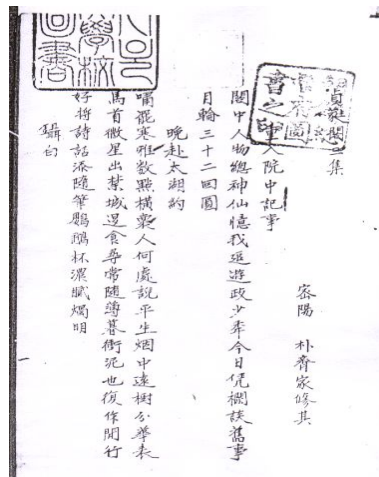
(7) 「貞蕪閣集」시집의 국내 영인본은 민족문화추진위원회의 「貞蕪閣集」(2본 결본)과 여강출판사의 「貞蕪閣全集」, 국사편찬위원회의 「貞蕪集」 및 아세아문화사의 「楚亭全書」가 있다. 이들 영인본은 국내의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결본들을 합본하였거나 일본 동양문고본을 영인하였다.

(8) 「貞蕪閣集」시집의 국외 현전본으로 이번에 새로이 발견된 미국의 경우 하버드엔칭도서관에 5권5책 완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는 결본으로 전하는 국내 사정에 비해 완질로 전하는 사본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국외로 유출된 우리나라 전적의 해외소장본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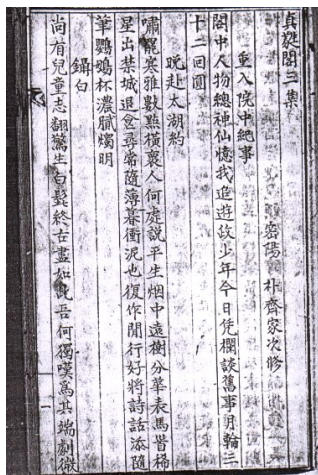
(9) 국내 현전본과 미국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을 비교결과 내용 및 내용구성의 들고남의 차이 외에도 형태, 권수부분, 서명사항, 저자사항 등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를 발견하였다. 특히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만이 갖추고 있는 각 집의 목록의 존재, 5집의 표제 및 저자사항, 판심제와 장서기록 등은 본 사본의 전래경위의 차별성과 고유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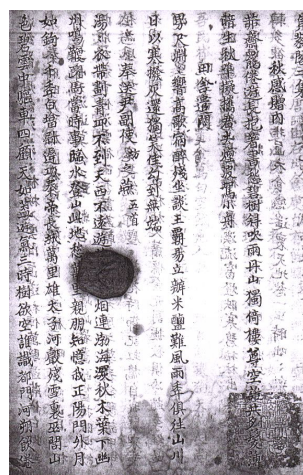
<도 1> 국립중앙도서관본
「貞巵閣集」 시집 1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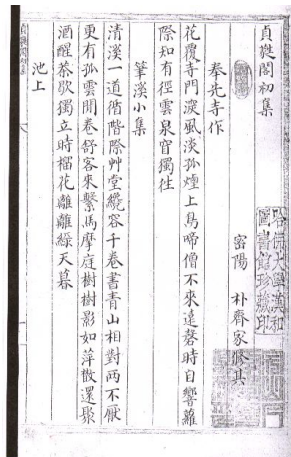
<도 2> 규장각본 「貞巵閣集」
시집 3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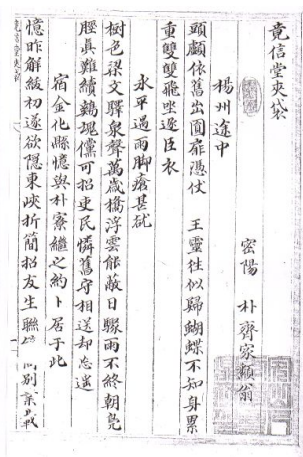
<도 3> 규장각본
「貞巵詩集」 시집 3집



<도 4> 단국대도서관본
「貞巵閣集」 시집 2집



<도 5> 하버드엔칭도서관본
「貞麤閣集」시집 1집



<도 6> 하버드엔칭도서관본
「貞麤閣集」시집 5집

<참고문헌>

- 「武科總要」, 영인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4.
 「武藝圖譜通誌」,
 白斗鏞 編, 「箋註四家詩」, 서울: 翰南書林, 1921.
 [朴齊家], 「竟信堂夾袋」,
 [朴齊家], 「北學議」,
 [朴齊家], 「貞麤閣集」, 영인본,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1977.
 [朴齊家], 「貞麤閣集」, 영인본, 서울: 民族文化推進委員會, 2001.
 [朴齊家], 「貞麤閣全集」, 영인본, 서울: 驪江出版社, 1985.
 [朴齊家], 「貞麤閣集附北學議」, 영인본,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檀紀4294[1961].
 [朴齊家], 「楚亭全書」, 영인본,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2.
 朴齊家 註解, 「周易」

朴趾源. 『燕巖集』. 서울: 京仁文化社, 1974.

『純祖實錄』.

安大會. “白塔詩派研究-李德懋·柳得恭·朴齊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大學院, 1987.

安大會. “韓國 漢詩의 分析과 視覺.”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吳省蘭. 『藝海珠塵』.

[柳琴 編]. 『韓客巾衍集』.

李德懋. 『雅亭遺稿』.

鄭玉子. “文學史的 側面에서 본 貞蕤集.” 『진단학보』 52(1981). 167-178.

『貞蕤閣詩集』 2-5집.

『貞蕤閣集』 3-5집

[貞蕤閣集] 1집, 3-5집.

『貞蕤閣初集』.

『貞蕤詩稿』.

『貞蕤詩集』 1, 3-4집.

『貞蕤稿略』.

『貞蕤詩初』.

鄭日南. “齊家の 詩論과 詩.”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2.

『正祖實錄』.

鄭忠權. “齊家 武科 應試 與否 辨證.” 『전농어문연구』 7집(1995). 111-125.

『楚亭小稿』.

『楚亭詩鈔』.